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아이젠휴스타트 하이든 페스티벌

지난 추석 연휴에 오스트리아 아이젠휴스타트에 다녀왔다. 수도 빈에서 50km 남쪽에 있는 이 작은 도시를 방문한 이유는 25년째 펼쳐지고 있는 하이든 페스티벌(Haydnfestival)을 참관하기 위해서였다.

'철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젠휴스타트는 하이든이 "가장 살고 싶고 가장 죽고 싶은 곳"이라고 했던 도시다. 그의 말처럼 하이든은 이 도시에서 인생의 절반인 40년을 살았지만 세상을 떠난 곳은 빈이었다. 하지만 그의 소원대로 그의 시신은 이곳의 하이든 교회의 관속에 누워있다.

하이든이 아이젠휴스타트에서 살았던 이유는 훌륭한 예술 애호가이자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명으로 이곳을 다스리게 된 에스터하지 후작은 두 개의 궁전을 지었다. 가을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 거기할 궁전(동궁)과 여름에 거기할 궁전(별궁)인데, 오페라 극장이 있던 여름 궁전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다시 지어지고 있다.

하이든은 에스터하지 후작의 성에서 봉급을 받으며 마음껏 원하는 작곡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꽤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두 명의 후작을 모시며 40년 동안이나 궁

전에서 봉직했던 것이었다.

아이젠휴스타트에서 하이든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올립픽을 하던 1988년의 일이었다. 29세의 젊은 예술감독이 밀터 라이허가 이곳에 예술감독(인연단트)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그가 부임한 것은 하이든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한 날짜로부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이곳곳으로 연락을 해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놀랄 정도로 첫 페스티벌부터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특히 런던은 하이든이 아이젠휴스타트 에스터하지 궁에서의 일을 끝내고, 그곳에서 받았던 대우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풍족한 돈을 번 곳이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최고로 끌려놓았던 하이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제도시였기에 그곳을 대표하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에스터하지 궁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하이든 페스티벌은 매년 규모가 커지면서 열흘 단위의 어여한 국제

페스티벌로 성장했고, 금년으로 25주년 유네스코 축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첫 1회 페스티벌로부터 25회 페스티벌까지 한 명의 예술감독이 이끌어왔고, 그는 이 페스티벌을 세계 최고의 하이든 페스티벌로 만들어내고 있다.

"처음 아이젠휴스타트에 왔을 때 29세였는데 이제 55세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더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은퇴하려고 합니다. 2032년에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서 큰 페스티벌 기간 내내 모든 공연에 아침, 저녁으로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환대하고, 리허설도 참관하면서 사운드 체크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술감독 라이허 박사는 가장 모범적인 예술감독의 온다.

그가 한 말 중 지금까지 필자의 뇌리를 울리는 감동적인 말이 있었다. 메인 스폰서가 아니나 필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메인 스폰서는 청중이 사주는 티켓입니다. 총 금액의 70%를 청중의 티켓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많이 팔기 위해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백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그런데 만약 해당 아티스트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미리 짜둔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함께 연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방대한 하이든 프로그램 가운데 선곡을 해서 공연을 통해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페스티벌 기간 내내 모든 공연에 아침, 저녁으로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환대하고, 리허설도 참관하면서 사운드 체크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술감독 라이허 박사는 가장 모범적인 예술감독의 온다.

그가 한 말 중 지금까지 필자의 뇌리를 울리는 감동적인 말이 있었다. 메인 스폰서가 아니나 필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메인 스폰서는 청중이 사주는 티켓입니다. 총 금액의 70%를 청중의 티켓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많이 팔기 위해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백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종교칼럼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소박한 결혼이 주는 축복

런 현상이 만연돼 있다. 부정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언론이 부추기는 기준에 따라 배우자감을 골라야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현대인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며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연일 쏟아내는 스타들의 결혼 소식들에 쓰쓸한 속내를 감출 수 없다. 수십억짜리 신혼집에 몇천 만원의 웨딩ドレス, 수억 원의 애들풀, 당시 식비만 억대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연예인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과도한 결혼 비용 지출은 이 시대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도한 결혼 비용 지출은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부부와 가정에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온다. 신랑은 집을 마련하느라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돌아온다. 신부도 마찬가지다. 힘에 부치는 예산 준비로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어 결국 그것들은 결혼 후 해결해야 하는 재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빛더미 속이리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닌가. 2012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위해 드는 비용이 남자는 7545만원, 여자는 52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결혼을 보면 예전에는 여자가 돈 없이 시집갈 때도 있었고 남자가 돈 없이 장가 못 갈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한다.

여류 문화인류학자 도로시 리가 조사한 푸에블로 인디언의 혼인 풍속을 보면 신랑은 친상의 걸 끌면 폐고 가고 신부는 둑자리 역을 갈때만 머리에 이고 간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은 숲에 가서 나무를 깎아다가 침상을 완성하고 신부는 갈대로 둑자리를 엮어 첫날밤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손수 세긴을 장만해 가는 것으로 삶의 낙을 찾고 있으며, 백인들이 세간을 사다주면 회를 막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같다. 하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결혼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 문제로 인하여 생겨나는 불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우려하는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

이 자녀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박하고 검소한 결혼에식이 축복된 가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광주시민 행복지수 높아진다

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수출선도형 도시로 탈바꿈했다. 문화와 환경, 복지, 여성, 시민소통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잇따르면서 다른 도시와 비교되는 높은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약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5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적인 종합SA 등급을 받았으므로써 참여와 소통의 자치단체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손자녀들 보미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들이 잇따라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 3년동안 161개 분야에서 957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이제 시민이 우리의 창창한 자산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참여와 소통의 '시민주권시대'를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의 미래 발전과 시민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한 견립비와 콘텐츠 개발 ▲2015 하계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 확충 및 대회준비를 위한 운영 ▲ 5·18 아카이브 구축 ▲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 남고속철도 건설 등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핵심사업과 현안사업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광주가 많은 성과를 거둔 데에는 광주시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밸로 뛰는 행정을 실천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의 집념, 열정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국비사업을 발굴,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강운태 시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뒷받침해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 등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부가 가을 수확기에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듯,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흘린 땀이 적지 않은 만큼 수확도 커서 광주시민의 행복지수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원을 냈을 때 시 준칙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이 구청장에게 민원을 협조 요청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때문이다. 따라서 준칙을 시에서 만들여 가지고 조례로 사무위임 해야 한다.

광주 동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준칙안을 만들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동구청은 잘못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장현·광주시 동구 운림동

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일은 우리 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닐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준칙안을 만들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동구청은 잘못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장현·광주시 동구 운림동

유종성

광주 대변인



민선 5기 들어서면서 광주의 지향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3년간 광주 공동체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자산과 가치가 세계 속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비롯해 시민 합의를 통해 인권지표와 광주인권현장을 선포하고, 국내·외 인권 도시와 기구·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제부문의 각 지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경제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자와 일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수출도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00억불을 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입주민 보호 우선돼야

이러한 준칙은 광주시가 검토한 후 만들어야 하는데 각 구청에 사무 위임 조례로 그대로 위임해 준칙을 만들게 했다.

주택법상 시장이 준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어떤 모순점이 있으나 하면 시장에게 민

社說

정부, 지방재정 위기에 더 옥죄기 해서야

기초연금 정부안이 26일 확정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1000억 원 안팎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양·시·도로서는 재정 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무상보육 국고 보조 20% 조정안'을 무시하고, 절반인 10% 포인트만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지방재정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광주시는 천방지에 부담액이 기존보다 300억 원 이상이 늘어난 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655억 원이 늘어난 1200억 원 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금과 부상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이 떠안아야 한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도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광주·전남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차등 보전책도 강구해야 한다. 지방 없는 정부란 있을 수 없다.

대도시 신규 첨단산단 광주가 제격이다

오는 2015년까지 새로 조성되는 첨단 산업단지 9곳 중 광주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 중국과 동남아 교역에 유리한 인프리를 갖춘 만큼 광주권은 신규 산단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전국 대도시 지역에 9곳의 첨단산단을 만들기로 했다. 첨단산단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미래창조 경제'의 산실이 되도록 한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경제해야 할 것은 산단 신설 계획이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계획에는 지방 대도시에도 할애한다는 방침이 서 있지만 물류비용 등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통과를 위한 뛰어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산단조성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광주시도 첨단 3지구 내 일부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경제 재도약과 균형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면 반드시 광주권에 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無等鼓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절정일 때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전투경찰(이하 전경)로 배치되라는 막은 쇠약의 저주였다.

전경의 강경 진압에는 직업 경찰로 구성된 백골단의 역할이 커다. 사복체포조로 불리는 백골단은 시위현장에서 전경의 뒷편에 있다가 전경이 시위대를 밀어부리면 득달같이 나타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체포했다. 일반인들은 백골단과 전경을 구분하기 힘들어 백골단의 악명높은 진압은 전국 전경이 짚어지게 됐다.

1989년 부산 동의 대 시위현장에선 전경 3명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숨지는 참사도 있었다. 후날 동의 대 시위 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지만 전경 순직자는 14년만인 지난 4월에야 보상을

받는 차별속에 물어야 했다.

전경이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4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32만9266명이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전역을 했다. 시대가 갈라놓은 역할일 뿐, 전경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굿바이 전경.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부지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tbl_r cells="3" ix="5" maxc